

“대장경 축전이 3000억 벌고 수천명에 일자리 줬다”

대장경축전 성공리에 회향한 김두관 대장경축전조직위원장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회향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당당성 연구에 따르면 이번 축전으로 328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3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 조직위원장인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는 “이번 축전은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해인사, 합천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대장경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각종 전시와 국제심포지엄, 해인아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장경의 의미를 다양하게 알려주고, 17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으며 폐막날까지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두관 지사는 이번 축전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누구보다 많은 열정을 갖고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이끌었던 김 지사는 이번 축전이 행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인이 팔만대장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계인과의 소통까지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본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대장경의 의미가 재발견 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사는 팔만대장경을 박제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기록문화의 꽃, 지혜의 보고로 되살려 낼 것이다.

또 김 지사는 “팔만대장경에 바탕이 된 불교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깊은 불심을 엿볼 수 있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마음이 앞으로 우리가 천년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불교적 토대 지역발전 기여 확산

김두관 지사는 평소 불교에 친숙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정치적 대안을 준비하며 고심하던 시기에 법전 스님을 친견하고 수계를 받으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335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정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인연이 있는 김두관 지사가 경상남도 지사에 당선되자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경상남도는 해인사, 통도사 등 전통사찰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성철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前 총무원장 고산 스님과 지관 스님 등 많은 불교계 인사들을 배출했다. 김두관 지사는 이런 불교적 토대가 지역 발전에도 힘이 된다고 설명한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불교문화와 불교 선지식인 배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애착심과 자부심은 도정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올해 9월

실시한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자임을 밝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예인, 교수 등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김두관 지사는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임기동안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자리입니다. 종교는 지극히 개인 신앙의 문제로 도정을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오히려 종교를 통한 건강한 사고로, 335만 경남도민의 일원으로서 도정 주제로 참여하고 함께 나아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번영 1번지로 순항 중

경상남도는 신임 정무부지사에 허성무 前 대통령 비서실 민원제도혁신 비서관을 11월 1일 임명했다. 허 신임 정무부지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두관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도지사직 인수위원 등을 지냈다. 정무부지사는 시민 사회, 야권 정당인이 함께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장경 천년축전 위해 동분서주

“세계인과의 소통 이끌어 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늘 가슴에

사람사는 세상 위해 초지일관

내년은 민선 5기 3년차가 되는 시점으로 내실 있는 공동지방정부를 위한 구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해 11월 출범한 민주도정협의회는 다양한 평가들이 엇갈리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공동정부 출범단계 성격인 민주도정협의회는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됐던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도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두관 지사는 “민주도정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소통과 균형, 대내적으로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능률성 못지않게 민주성, 투명성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 도의 회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해 경상남도지사에 당선된 김두관 지사는 당시 최대의 화제였다. 야권단일 후보였지만 전통적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경제발전, 복지확대, 사회통합을 도정의 축으로 하면서 행정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번영 1번지 경남’을 표방하고 있는 김두관 지사는

번영 공평 복지 클린을 핵심가치로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대민 소통을 위한 열린도정과 공개행정을 지향하며 조직 개편 및 행정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락사업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왔다.

김두관 지사는 “내년에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시행,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을 추가 확대 등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목표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지사는 경상남도가 이런 목표를 통해 미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속에서 경남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남도는 70년대 이후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분야에서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 이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전략산업을 재편해 태양력, 풍력 클러스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한 걸음씩

김두관 지사는 1995년 실시된 초대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 2010년 경상남도 도지사 당선 등 그의 행보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김 지사는 학창시절 이던 20대 때 시국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평생 추구할 고민에 빠졌다.

“그 당시 수감 중에 진정 사람사는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지역, 고향인 남해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남해군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드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연구를 계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치인, 정당인, 행정가 등 다양하게 변모하는 삶 속에서도 ‘사람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지역불교 활성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불교가 쇠퇴한 이유가 지역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양한 지역 활동이 불교 활성화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의 이런 인식과 불자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김두관 지사의 확신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김두관 지사는 “풀뿌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점차 강화돼 지역 발전은 더욱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낙관하듯 지방자치 정착의 미래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2, 제3의 김두관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김 지사는 어려운 시대에라도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힘을 낼 것을 당부했다.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顧)하지 않고 일관된 길을 걸었기에 지역민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분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제조방법) 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성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옷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